

문학 정전의 해체와 재구성

:여성 글쓰기의 기원과 정체성을 찾아서

김은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목차

- 1 여성문학 정전의 부재와 ‘페미니즘 원년’의 반복성
- 2 여성문학 정전의 필요성과 그 효과
- 3 여성문학 정전의 미래
- 4 결론을 대신하며

‘정전’이 객관성에 대한 날조된 신화를 내세워 일종의 권위로 군림하며 타자의 문화에 대해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힘을 행사해왔다는 비판은 정전 논쟁이 거둔 중요한 성과가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단순한 진실은 정전이 폐기불가능하면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정전을 영구불멸의 신화가 아니라 퇴장과 교체가 이루어지는 가변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전성’은 무릇 정전이 지녀야 할 내적, 외적 조건으로 시대와 맥락에 따라 그 내용과 기준이 변화한다고 보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나아가 정전의 가치 판단이 일부 특권 계급의 이익이나 관심사에 의존하지 않도록 사회적 소수자들의 지식이나 문화적 유산을 등록해야 한다.

오늘날 『82년생 김지영』(민음사, 2016) 신드롬으로 대표되는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은 ‘정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암시한다. 2018년 미투 열풍이 일기 전 2015-2016년도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문학이라는 고상한 이름 뒤에 가려진 날것의 폭력을 고발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인 여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은 단지 신체의 소유권만이 아니라 문학에 대한 오랜 선망이나 존경심이었던 것처럼 문단 내 성폭력은 일부 남성 문인의 도덕적 일탈로 축소시킬 수 없는 문학의 문제였다. 이는 ‘문학’ 혹은 ‘문학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반성적인 질문들이 제기되어야 함을 뜻한다. 여성문학의 정전화는 중간계급 지식인 남성의 가치, 관심, 이익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문학을 해체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등록하는 ‘미적인 것의 분할’(랑시에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페미니스트 문학 연구자들에게 여성문학의 기원과 그 역사를 등록해 정신적 유산으로 만들어 줄 앤솔로지를 구축하는 작업은 더 미룰 수 없는 실천이다.

국문핵심어: 정전, 여성문학사, 여성문학 앤솔로지, 대항정전, 페미니즘 리부트 등

1 여성문학 정전의 부재와 ‘페미니즘 원년’의 반복성

버지니아 울프의 「새 드레스(The New Dress)」(1925)는 중년 여성 메이블이 파

티에 참석하지만 즐기지 못한 채, 타인이 우스꽝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이야기이다. 울프는 메이블을 통해 어쩌면 많은 여성들이 겪을 법한 내적 문제를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메이블을 사로잡고 있는 불안과 과잉된 자의식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뚜렷한 타인에 대한 메이블의 선망은 그녀가 겪는 고통이 사물과 세계에 대한 확신없음에서 비롯됨을 암시한다. 메이블의 이야기는 인생의 리얼리티를 오롯이 움켜쥐지 못한 ‘여성’의 불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울프는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거나 성적 규범을 자기 정체성으로 간주하도록 길들여진 여자는 이렇듯 이름붙이기 어려운 문제를 겪기 마련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래서 메이블이 “내일 런던 도서관에 가야지”¹라고 결심하는 소설의 결말은 뜬금없다기보다 의미심장하게 여겨진다. 책과 독서에 대해 인류가 오래도록 품어 온 기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다양하게 해석한 글을 읽음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문화 규범에 저항하고 사회를 위한 대안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²을 갖기 소망하며 그녀는 도서관에 가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메이블’들이 도서관에서 인생에 대한 확신을 움켜질 수 있을까? 울프는 이 소설을 발표한 얼마 후 ‘여성과 픽션’에 관한 에세이 『자기만의 방』(1929)에서 ‘책의 젠더 정치학’이라고 할 만한 분석을 들려주었다. 이 책에서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연간 500만 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성 화자는 여성이 가난한 이유를 알기 위해 도서관에 간다. 그러나 화자는 책의 저자는 대개 남성이고, 그들은 이 주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한 무리의 유명한 이름들로 화려하게 에워싸인 거대한 대머리”(43쪽)로 비유된 도서관에서 가난만큼이나 여성을 억누르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한다. 남성 저자들은 의외로 여성에 관해 많은 책을 썼으며, 그 내용은 대개 “여성의 정신적, 도덕적, 신체적 열등에 대한”(51쪽) 것이라는 경악할만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울프는 ‘여성의 열등함’이라는 주장은 악의적으로 날조된 것으로, 여성에게 “남성의 모습을 실제의 두 배로 확대 반사하는 유패

1 버지니아 울프, 유진 역, 『버지니아 울프 단편 소설 전집』, 하늘연못, 2013, 294쪽.

2 벨 훅스, 윤은진 역, 『페미니즘: 주변에서 중심으로』, 모티브 북, 2010, 174쪽.

한 매력을 소유한 거울 노릇”(56쪽)을 강요한다고 비판한다. “거울은 모든 격렬하고 영웅적인 행위에 필수적인 것”³으로 불안에 시달리는 남성이 자신감 회복을 위해 여성이 열등하다는 믿음을 원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상상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비록 체구가 크다고 할지라도 자신감이 없으면 무기력한 아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울프는 책이 쓰이고 읽히는 맥락을 ‘성(性) 간의 전투’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했다. 그러나 말이 전투이지 여성들은 실상 피투성이 패잔병의 신세를 면하지 못해 온 것이 성의 역사이다. 울프에 따르면 여성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을 뿐더러 생각의 등뼈에 불을 밝혀줄 질 좋은 음식조차 먹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혼자서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상상하고 사색하며 스스로 개인임을 경험하게 해 줄 방조차 가질 수 없었다. 결국 여성은 신에게 재능을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작가가 될 수 없었고 여성 독자는 성 역할 자아에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 개인이 될 수 있는지 조언을 들려줄 책을 만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가난을 극복하고 자기만의 방도 갖게 되어 저자가 되면, 도서관은 여성에게 해방구가 될 수 있을까? ‘성스러운 도서관’에 모셔진 ‘정전(正典, canon)’이 남성 저자의 것인 한 여성 저자는 도서관에서도 남성 저자를 더 크게 비추어주는 거울 노릇을 면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인류의 필독서로 추앙받는 정전은 남성들로 구성된 사회적 권력 집단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답변을 내놓기 쉽지 않다.

‘정전’은 어원적으로 ‘규칙’(rule)을 뜻하는 라틴어 ‘canon’에서 파생되어 ‘법령’ 혹은 ‘칙령’을 의미하다가 근대에 ‘기본적 원칙, 판단’ 혹은 ‘권위의 준거’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온 말이다. 오늘날 ‘정전’은 “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 공인된 텍스트나 해석 혹은 모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텍스트”이자,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체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져 온 ‘위대한 책’들로 통용된다.⁴ 따라서 정전을 읽는다는 것은 인간다움

3 자세한 내용은 『자기만의 방』 2장을 참조할 것. 버지니아 울프, 이미애 역, 『자기만의 방』, 예문, 1990, 42-63쪽.

4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역음, 왕숙영 역,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3, 18쪽.

을 함양함으로써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조야함을 극복하고 교양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68혁명’ 이후 불거진 ‘정전 논쟁’⁵에서 ‘정전’은 근본적으로 보편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정전근본주의가 근거없는 신비주의라고 비판받으면서 정전에 대한 신화적 믿음에 균열이 갔다. 정전은 내셔널리즘의 형성, 귀족 중심의 사회에서 부르주아지 사회로의 이행, 인쇄술의 발달과 출판업의 성장, 문맹률 감소, 시민 혁명 등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고, 소위 시민의 미덕을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 온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정전은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그룹 혹은 집단의 이익이나 관심을 반영한 것이자 지배적인 단체 또는 제도나 기관에 의해 구축되어 온 제도로 간주된 것이다.⁶ 정전으로 불리는 절대 다수의 작품들은 대개 백인 남성 중산층 계급의 것으로 여성이나 유색 인종 작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되었다.⁷

‘정전’이 객관성에 대한 날조된 신화를 내세워 일종의 권위로 군림하며 타자의 문화에 대해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힘을 행사해왔다는 비판은 정전 논쟁이 거둔 중요한 성과가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단순한 진실과 인간이 읽는 데서 위로받고 또 성장하는 존재라는 믿음을 외면할 수 없는 한, 정전은 폐기불가능하면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전을 영구불멸의 신화가 아니라 퇴장과 교체가 이루어지는 가변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유연하게 바

5 서양의 정전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정전은 근본적으로 보편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정전근본주의(신비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 내부에 근본적 가치는 없으며 정전으로 선별된 텍스트는 특정한 시대와 집단의 이념이나 관심을 반영한다는 반근본주의의 입장이다. 이종일, 「정전 논쟁의 사회사적 고찰」, 『사회과교육』 55권 4호, 사회교육연구, 2016, 66쪽.

6 정전 형성이란 “사회나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집단(대개 정치적, 문화적 엘리트)이 후속 세대를 위해 의미 깊고 가치있는 전통 요소로 여겨지는 텍스트를 선택하여 문화적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전은 정전을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와 의미를 구성하고자 할 때 생긴다.” 고규진, 『정전의 해부』, 전북대학교 출판부, 2016, 134-135쪽 참조.

7 고갑희에 의하면 영문학의 권위를 대변하는 『노튼 영문학 선집』의 초판은 18세기 이전까지 여성 작가의 작품들을 기록조차 하지 않았고, 1950년대 이전의 여성 작품 역시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고갑희, 「정전의 탈신비화와 한국의 영문학 교육」, 김용권 외, 『영문학 교육과 연구의 과제들』, 한신문화사, 1998, 211쪽 참조.

라볼 필요가 있다. ‘정전성’은 무릇 정전이 지녀야 할 내적, 외적 조건으로 시대와 맥락에 따라 그 내용과 기준이 변화한다고 보는 열린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⁸ 정전의 역사는, 정전화의 조건이 달라져 어떤 정전이 특권을 잃고 탈락하며(탈정전화) 새로운 집합적 이상에 의해 새로운 작가, 작품, 장르 등이 문학의 중심 정전으로 도약하는(재정전화) 경우도 드물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정전의 권위를 거스르는 대항 정전(counter canon)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게 더욱 생산적이다. 정전의 가치 판단이 일부 특권 계급의 이익이나 관심사에 의존하지 않도록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지식이나 문화적 유산을 등록해야 할 것이다.

정전 논쟁은 서구에서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중반에 국문학계에 ‘젠더’를 도입하는 극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페미니즘 무크지 『여성(1)』에 실린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은⁹ 현대적 정전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 작가의 문학을 비판함으로써 한국문학사에서 페미니스트 비평의 포문을 열었다. 이 글을 쓴 대학원생들은 최인훈, 이문열, 김승옥, 조해일, 천승세, 황석영 등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남성 작가들은 ‘진보/보수’의 구분법이 무색하게도 작가의 관념에 의해 여성 인물을 일방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여성의 주체적 모습을 그렸다고 해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왜곡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정전 비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여성문학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평가 역시 가능해졌다. 조한혜정은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에서¹⁰ 주류의 남성 연구자들과 진보적 여성 연구자들의 박완서 문학에 대한 비평이 남근중심주의와 엘리티시즘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며 박완서에

8 박상진, 「정전 (연구)의 새로운 지평: 정전성의 정치학」, 『민족문화연구』 제55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3-7쪽 참조.

9 이 글의 필자들은 ‘위대한’ 문학 작품에 내재된 여성에 대한 진부한 상상과 폭력을 비판함으로써 한국문학에서 페미니스트 문학 비평이 시작하고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상경은 이 비평문의 필자로 이후 국문학계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연구자로 성장한다. 정은희, 박혜숙, 이상경, 박은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1)』, 창작과비평사, 1985, 6-52쪽.

10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작가세계』 3(1), 1991, 작가세계사, 97-144쪽.

대한 ‘여성중심비평’을 시도했다.¹¹ 이렇듯 기존의 문학 정전에 대한 의혹이 촉발되자 1980년대 중후반에는 한국문학사에서 잊힌 여성 작가인 나혜석, 김명순, 강경애, 박화성 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어 이들을 정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1990년대에 들어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으로 ‘저자성’ 개념이 회의되고 문화론적 연구가 부상하면서 ‘정전’은 더 이상 의미있는 주제가 되지 못했다. 국문학 내에서 여성문학 연구가 다각화되고 그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한편으로 잊힌 여성 작가들이 상당수 발굴되지만 한국문학사의 결락된 틈을 보완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대항적 차원의 여성문학사 정전을 구축하는 과정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82년생 김지영』(민음사, 2016) 신드롬으로 대표되는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은 ‘정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암시한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과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를 시작으로 여성이 사회적 타자로서 겪었던 각종 피해의 경험이 공적 영역에서 발화되기 시작하며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이슈로 등장했다. 여성들의 봉기로 불리는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것은 기실 문학계였다. 2018년 미투 열풍이 일기 전 2015-2016년도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문학’이라는 고상한 이름 뒤에 가려진 날것의 폭력을 고발했던 것이다. 문단 내 성폭력 사건이 “한국문학사의 ‘명예’로 간주되던 작가들의 이름이 행여 ‘문학적 권위’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돼 온 가부장제 지배 질서의 지표들은 아닌지 의심”¹² 촉발했다는 오혜진의 문장은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의 다수는 전자 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아니라 문단의 권위있는 작가나 제도 교육 장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 교수였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인 여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은 단지 신체의 소유권만이 아니라 문학에 대한 오랜 선망이나 존경심이었던 것처럼 문단 내 성폭력은 일부 남성 문인의 도덕적 일탈로 축소시킬 수 없는 ‘문학’의 문제였던 것이다. 이는 ‘문학’ 혹은 ‘문학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반성적인

11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 편이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제 51호, 상허학회, 2017, 15-49쪽.

12 오혜진,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서문을 대신하여」,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권보드래 외 12인 공저, 민음사, 2018, 7쪽.

질문들이 제기되어야 함을 뜻한다. 여성문학의 정전화는 중간계급 지식인 남성의 가치, 관심, 이익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문학을 해체하고 마이너리티의 목소리를 등록하는 ‘미적인 것의 분할’(랑시에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이너리티가 자기의 기원과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때 혁명은 매번 도돌이표처럼 과거의 기억을 지우며 재귀환할 수밖에 없다. 페미니스트 문학 연구자들에게 여성문학의 기원과 그 역사를 등록해 정신적 유산으로 만들어 줄 앤솔로지를 구축하는 작업은 더 미룰 수 없는 실천이다.

2 여성문학 정전의 필요성과 그 효과

이 장에서는 정전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전제 하에 여성문학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문학의 중심 권위를 해체할 대항 정전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원론적 차원에서나마 그 이유를 밝혀 보고자 한다. 여성문학사 정전은 여성이 ‘마이너리티’ 집단으로서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마이너리티’는 그간 한 국가의 인구적 측면에서 소수이며, 피지배자적인 지위에 있고, 그 국가의 국민이면서 다른 주민과 구별되는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록 암묵적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문화, 전통, 종교 또는 언어를 보유하려는 연대 감정을 지닌 집단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조차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집단 간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해 마이너리티를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 정의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해지고 있다. 따라서 수적으로는 결코 소수가 아니지만 권력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도 넓은 의미의 마이너리티로 간주되고 있다.¹³ 마이너리티로서의 여성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담론의 위협과 한계를 피하면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재하는가를 개념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아이리스 영에 의하면 여성을 사회적 집합체 혹은 그룹으로 범주화하지 않을 경우 구조화, 제

13 마이너리티의 개념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신기영, 「마이너리티 이론의 탐색: 비본질적·포괄적 연구를 위하여」, 『일본비평』 8호, 서울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3, 25-30쪽.

도화된 과정으로서 여성이 경험하는 억압은 분석되기 어려우며, 억압의 불리한 조건들, 사회적 배제들은 개인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으로서 여성이 긍정될 때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이 자연스럽거나 단지 개인적인 문제라고 믿는 것을 멈출 수 있다.¹⁴

프랑스혁명은 여성이 사회적 집합체로서 인식되지 못했을 때 어떤 곤경에 처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일 것이다. 프랑스혁명 이후 국민의회에서는 천부적 인권의 자명성 개념을 바탕으로 ‘피부색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권리 선언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그 중 극소수만이 여성에게 적용하자고 할 정도로 여성의 권리 획득은 노예, 유색 인종, 유대인보다 늦었다. 역사학자 린 헛트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법은 여성의 권리를 제한했지만 여성은 노예와 달리 일부 권리를 지니고 있었고, 여성은 지적이지는 않더라도 도덕적이라고 간주되었고, 아버지나 남편에 의존하지만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간주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한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의 권리는 여타 집단보다 ‘상상 가능성’ 등급이 확실히 낮았다”¹⁵고 표현함으로써 여성을 차이의 존재로 설명하기보다 정치적 권리를 가진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 줄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하늘 아래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 간 차이가 여성이 정치적 집단이 될 수 없는 운명적 장벽은 될 수 없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인식은 남성들이 서로를 수평적 존재로 상상함으로써 형제에 공화국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인간이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려면 오히려 출생, 가족, 부, 직업, 재산, 소유권, 종교 등에 따른 사회적 지위들과 구별되는 추상적 개인 관념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¹⁶

14 김리나, 「메갈리안들의 ‘여성’ 범주 기획과 연대」,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7, 120-121쪽에서 재인용.(Young, Iris M, “Gender as Seriality: Thinking about Women as a Social Collective,” Signs, 19(3), pp.713-738.)

15 린 헛트, 정진성 역, 『인권의 발명』, 돌베개, 2009, 193-195쪽.

16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백과전서』에서 개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터는 인간이고, 폴도 인간이다. 그들은 같은 종에 속한다. 그러나 그들은 ‘헤아릴 수 있는 차이로만 구별된다. 한 사람은 잘 생겼고, 다른 한 사람은 못생겼다”고 썼다. 조앤 W. 스콧에 의하면 이 문장은 대조의 관계로 개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공통성을 명료하게 드러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 간 차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서로를 동

문학이 수많은 예술 영역 중에서 근대의 대표적인 장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자로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기보다는 타인을 더 많이 동정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도덕성을 고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¹⁷ 독자는 그들 자신과 다른 개체들이 가진 개인성과 그 내면을 문학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밖의 마음을 가진 시민이 될 수 있었고, 이는 절대 왕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하고 자율적인 개인이 주도하는 시민 사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근대문학사에서는 남성이 민족이나 계급을 대표하는 주체로 여겨짐으로써 여성의 경험은 주변화되고, 여성 혐오의 시각이 독자에게 주입되어 왔다. 가령, 한국 문학은 6.25 전쟁 이후 이념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 투쟁을 통해 극우적 내셔널리즘에 저항해 왔지만 여성이 겪은 전쟁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다. 전쟁 성폭력 피해자나 “양공주”는 존재 자체가 에피소드화되거나 오염된 민족의 표상이 됨으로써 애도되기는커녕 가부장적 탈식민 주체 형성의 도구가 되어왔다. 한국문학은 여성이라는 타자의 입장이 ‘되기’에는 실패해 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문학 정전이 문학사에 부재나 잉여로 남아 있는 여성의 역사를 기입하고 기억 창고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음을 뜻한다.

이경하는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상’을 필요로 한다고 한 바 있다. 정체성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변화와 차이의 지점을 억제해 동일성과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획득되기 때문이다.¹⁸ 정체성은 우리에게 방향 감각을 제공하는 역할, 사물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하는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제공해주는 지평으로, 우리 자신이 무엇을 귀하게 판단해야 하고, 무

료로 보는 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백과전서』의 인용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조앤 윌라치 스콧, 공임순, 최영석, 이화진 역,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프랑스 여성참정권 투쟁이 던진 세 가지 쟁점 여성.개인.시민』, 엘피, 2006, 41쪽.

17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동류의식의 원천은 고통받는 사람과 상상 속에서 자리를 바꿈—타인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걸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임스 우드, 설준규·설연지 역, 『소설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창비, 2011, 177쪽 참조.

18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5-6쪽.

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게 해준다.¹⁹ 특히 마이너리티에게 정체성은 긍지와 기쁨만이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은 일종의 자본과 같이 연대감을 풍부하게 해주는 한편으로 정체성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회구조의 모순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다른 한편으로 마이너리티의 역사는 다수 지배 집단 정체성의 경계선 밖으로 내몰린 배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경계선을 끊임없이 교란하는 저항 주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주로 피해자적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지만 마이너리티는 기실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불평등을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수준에서 저항하고 싸워왔기 때문이다.

정체성 정치와 관련해서 볼 때 여성문학 정전은 한국문학사에서 저평가되어 온 여성 작가의 글쓰기 능력에 대한 인정 투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⁰ 여성 작가의 정전 배제는 ‘읽고 쓰는 능력 그 자체로부터의 배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저자는 문학 작품의 집필자, 원작자, 창조자라는 말로 통용되지만 작품은 천재적인 영감을 가진 개인의 표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자는 작가의 창조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자아 및 개인과 연결된 개념인 것이다.²¹ 한국문학 정전의 역사에서 여성 작가의 주변적이고도 불안정한 위치는 여성들이 독창적인 사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적 조탁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19 찰스 테일러, 권기돈·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새물결, 2015, 65-70쪽.

20 아마르티아 센은 우리가 개인의 정체성을 주장할 자유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 터무니없이 제한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원인 귀속’ 개념을 든 바 있다. ‘원인 귀속’은 지배 집단이 타깃의 대상이 된 범주에 속하는 이들을 잘못 기술하고 그런 잘못된 특징이 타깃이 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일하고 적절한 특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신분을 강등시키는 정체성 정치를 뜻한다. 아마르티아 센, 이상환·김지현 역, 『정체성과 폭력』, 바이북스, 2009, 38-42쪽 참조.

21 저자 개념에는 1)영감, 천재성, 개성의 소유자를 신성시하는 사유 2)저자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를 중시하는 사유 3)자기 확신, 자기 탐색, 자기 서술같은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라는 주체중심적 사유 4)물질적 자산으로서 작품/텍스트에 대한 법적 저작권을 소유한 자와 연관된 경제적 사유 등 부차적 개념들이 내포되어 있다. 최문규, 「낭만주의와 저작성—저자 주체Autosubjekt의 정립과 해체 사이에서」,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43호, 한국뷔히너학회, 2014, 42쪽.

여겨짐으로써 ‘저자성’(authorship)을 인정받지 못했음을 뜻한다. 기실 신성시 되기까지 하는 저자 개념은 작품을 개인의 물질적 자신으로 보는 출판 시장의 출현과 인간을 종교적 지배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의식과 행동으로 세계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 보는 부르주아 문화의 소산이라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기 구조주의는 탁월한 개인의 창조적 행위의 산물을 뜻하던 ‘작품’(work)을 ‘텍스트’로 명명하며 저자의 죽음을 선포하고, ‘작가’ 중심의 문학사, 근대 문학 제도를 규정하는 시, 소설, 희곡 등 ‘장르’ 중심의 문학사를 넘어 타자들의 다양한 글쓰기에 주목하는 문화론적 연구를 제안했던 것이다.

엘리트 중심의 문학사 서술을 넘어서 정전화된 순수문학과 대중문화 사이의 극단적 대립을 피하고, 하위 주체들의 다양한 표현의 역사들을 문화적으로 등록하려는 시각은 매우 정당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나 작품 생산에 있어서 작가의 위치나 그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이다. ‘저자의 죽음’은 텍스트가 고정불변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면 해석 주체로서 독자의 역할이 무시된다는 비판 의식 속에서 선언되었다는 점이 의도적으로 무시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바르트가 전통적인 저자의 권리를 빼앗은 것은 글을 읽는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지 저자의 완전한 용도폐기 선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혹하는 글쓰기’ 개념이 암시하듯이 바르트는 말라르메, 발레리, 프루스트처럼 현대적 글쓰기를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자의 탄생이 창조적 독서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저자가 작품 해석의 필수 조건이라거나 저자 없이 의미 부여는 불가능하다는 전통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저자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²² 결론적으로 문학 작품을 문화적 자료로 취급하거나 문화사로 환원하는 대신에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남성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 대조하고, 여성문학의 성취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성 작가의 작품이 정전의 권위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자의 죽음’ 선포는 여성 작가를 비롯해 소수자들의 문학을 주변부에 공고히 위치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 고규진, 「저자/저자성의 문제—바르트와 푸코의 영향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제 67호, 한국독일언어문학학회, 2015, 233-240쪽 참조.

혐오의 사회에서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감정이입을 추구하는 교육, 혐오와 배제를 지양하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여성문학 정전의 가치를 논할 수 있다.²³ 정전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원천적으로 내장하고 있다기보다 작품의 생산자만이 아니라 텍스트의 가치를 생산하고 그 가치를 소유하고자 하는 독자를 만들어내는 관계자 및 제도, 기관과 관련된 제도다. 특히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포함해 학교는 정전을 생산하고 그 권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쳐 왔다. 문학 정전은 비단 문학을 전공하거나 문학 애호가의 행복 재화가 아니라 학생이 교양 있는 시민의 자질을 형성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 수단으로 채택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근대의 학교는 엘리트 주체 양성에 초점을 둔 국가 기구로서 다양한 주체 위치를 고려하지 못했다. 가령 흑인 페미니스트 벨 훅스는 중산층 엘리티시즘을 핵심으로 한 학교는 성차별주의, 제국주의, 인종 혐오를 주입함으로써 소수자가 주류 집단의 가치관에 동화하기를 부추겨 왔다고 비판하고 인종, 계급, 젠더/섹슈얼리티의 교차 영역에 위치한 흑인 여성들의 의식화를 위한 ‘페미니즘 페다고지’²⁴를 제안한다. 흑인 페미니즘 페다고지에 대한 그녀의 고민은 소외된 자의 해방을 위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가, 누가 쓴 어떤 텍스트들을 읽힐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²⁵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여성문학 앤솔로지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공간이다. 참여학생회의 발족이나 여대생 ‘교지’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23 마사 C. 누스바움, 정영목 역, 『인간성 수업—새로운 전인교육을 위한 고전의 변론』, 문학동네, 2018, 17~18쪽 참조.

24 페미니즘 페다고지란 “페미니즘 이론과 페미니즘 원리에 기초한 가르침의 철학”으로 “여성주의 교육과 여성주의 교수법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이자 “학교 교육뿐 아니라 여성주의 가치 실현을 교육의 목표 혹은 내용으로 삼는 다양한 교육현장의 실천을 포함”하는 말이다. 페다고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배유경, 「여성학/주의 교육을 위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전략 탐구」, 『페미니즘 연구』 제18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2018, 352쪽.

25 벨 훅스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해방의 일환으로서 비판적 교육을 제시하는 프레이리의 이론을 가져와 교수의 지식을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은행적금식 교육’을 비판하며 교수자의 탈권위주의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흑인 여성이 자신의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는 ‘증언’에 기반을 둔 말하기와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벨 훅스, 윤은진 역, 『경계 넘기를 가르치기』, 모티브북, 2008, 276쪽.

대학은 대안적 여성 지식인/작가가 탄생하고 페미니스트 정치 투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 온 역사적 현상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학의 교양 영역에서 페미니즘 문학 강좌가 개설되어 난해한 페미니즘 이론을 학부생이 비교적 쉽게 습득하면서도 여성의 글쓰기 정체성을 탐색하는 장이 되어 왔다.²⁶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 재편에 따른 젠더 백래시의 흐름 속에서 한동안 사라지다가 최근 페미니즘 리부트를 즈음하여 다시 개설되고 있어 교과목으로서 위치가 안정적이지 않다. 전공/교양의 위계가 엄격히 존재하는 한국의 대학에서 그간 교양 영역에서 여성문학 강좌가 개설되어 왔다는 것은 주변부에서라면 머물러도 좋다는 국문학의 ‘관용’ 정책처럼 여겨진다. 그만큼 국문학 안에서 여성 작가의 문학은 모방할 만한 권위를 가지지 못했다고 여겨져온 것이다.²⁷ 미투 운동의 진원지였던 국문학이나 문예창작학과에서는 최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페미니즘 독회를 꾸리고 있지만 대학이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여전한 현실이다. 국문학이나 교양학부에서 과목 개설권이 있는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문학 정전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개별 여성 작가나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여성문학사 전체에 대한 조감이 용이하지 않고 무엇을 읽혀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문학 정전 구축이 진행되는 한편으로 페다고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전 교육이 주류 집단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비판은 중고등학교의 문학 교육 현장을 향해도 무방할 것이다. 박수현에 의하면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다수의 작품들에서 시선과 발화의 주체는 엘리트이고, 대상은 민중으로 분할된다. 이렇듯 교과서 저자의 엘리트적 위치는 타자 이해 교육이

26 여성문학 선집 형식의 『스무살의 페미니즘』(이정희 편, 청동거울, 2002), 『여자의 열쇠』(하응백, 문영희, 이정희 편, 답장, 2000)는 본래 경희대학교의 교양강좌 ‘문학과 여성’의 교재로 개발되었다.

27 김남조는 ‘소영 박화성 문학 페스티벌’(2019.10.5. 장소: 남산 문학의 집)에서 숙명여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 <여류문학>이라는 제목의 강좌 개설을 시도했지만 교육부에서 반려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교과부 담당자들의 뜨악한(?) 반응은 “여류문학”이 멀칭이어서가 아니라 여성작가, 여성문학이 대학에서 학문적으로 탐구될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강자를 위한 강자에 의한 교육이 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끼거나, 강자의 시선에 동일시되어 약자를 대상화하거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면화하게 된다.²⁸ 문학 정전 읽기는 인간성을 함양한다는 교육적 목표 하에 이루어지지만 이처럼 소수 집단을 배제하거나 객체로 위치시킨다면 차별을 예비하거나, 타자가 해방될 권리를 뺏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전 텍스트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계급, 성별, 인종, 국적,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주체 위치를 외면하지 않는 정전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⁹ 루소는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등하기에, 상상력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개인 간 차이를 넘어 타인의 탄식에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³⁰ 그러나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이유나 양상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주체는 타자의 고통 속에서 오로지 자기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문학 정전의 미래

이 장에서는 정전의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여성문학 정전의 구체적인 얼굴을 그려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문학사에서 최초로 정전 개념이 탄생한 일제 식민지기로 거슬러 올라가고자 한다. 식민지기에는 삼천리사 기획의 『명작소

28 박수현, 「문학 교과서의 타자 이해 단원 연구—2012 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現代文學理論研究』 6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141-163쪽.

29 최근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남성 작가에 비해 35%를 차지할 만큼 여성 작가의 작품이 과거에 비해 다수 수록되었다. 그러나 김애란, 최은영 등 젊은 여성 작가에 편중되어 김명순, 나혜석, 강경애 등 여성문학사의 기원에 해당하는 작가가 빠지고 계급, 인종, 민족, 섹슈얼리티 등 차이에 따른 다양한 여성 주체를 포함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국어과 2015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천지영, 「2015 개정 『문학』 교과서 현대소설의 교수·학습 방안: 당대 소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 논문, 2019; 김유석, 「문학 교과서의 젠더 감수성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19, 1-79쪽.

30 루소가 젊은이들의 감정 교육 방안으로 제안한 ‘공감’론의 세 번째 준칙은 “사람들이 타인의 불행에 대해 가지는 동정심은 그 불행의 크고 작음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기울이는 감정에 의해 측정된다”다. 장 자크 루소, 김종현 역, 『에밀』, 한길사, 2009, 400-401쪽.

설 30선』을 시작으로 『조선문학전집』(1936), 『현대결작장편소설전집』(1937), 『현대조선문학전집』(1938) 등 선집/전집이 잇따라 발간되었다. 근대문학사 약 20년간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특정한 기준에 의한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의해 문학 작품이 정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문학 정전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여성 작가가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오늘날 한국문학 정전의 기본 틀이 된 『현대조선문학전집』(1938, 조선일보사)에는 소설의 경우, 여성 작가 7명(박화성, 장덕조, 백신애, 이선희, 강경애, 최정희, 김말봉)의 작품이 실려 있다.³¹ 그러나 여성 작가의 작품은 여성 작가의 활발한 문학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지만 문학성이 아니라 출판사의 상업적 고려 차원에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손성준은 『현대조선문학전집』이 이보다 한 해 전에 출간된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1937)의 인기에 힘입어 발행되었으리라고 추정한다.³² 출판 시장이 문단의 희소하고 특이한 존재로서 여성 작가에 주목해 정전을 발간하고 상업적 성공을 거둠으로써 문학 정전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인 1939년에 『여류단편결작집』이 〈신선문학전집〉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작가는 문학적 권위가 아니라 ‘신선’이라는 레테르가 붙여짐으로써 출판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 탓인지 문학 정전의 역사에서 여성 작가의 지위는 그다지 굳건하지 않다. 유용태는 『현대조선문학전집』과 『현대조선여류작가선집』은 동일한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수록된 여성 작가도 동일하지만 선정된 작품은 다르다는

31 『현대조선문학전집』은 전7권으로 구성되었는데, 단편집이 3권으로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시가집, 수필기행집, 희곡집, 평론집이 각 1권씩 차지한다. 『현대조선문학전집』은 프로문학을 배격하고 문학적 평가는 미적 측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탈정치성을 표방함으로써 해방 후 문학 정전의 구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유용태, 「근대 한국 문학정전의 문학제도적 접근—『현대조선문학전집』을 중심으로」, 『현대조선여류작가선집』 제47호, 중앙어문학회, 2011, 289-319쪽 참조.

32 “조선일보사에서 간행한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은 1937년 4월 26일 초판이 유통된 후 한 달이 채 경과하기 전인 5월 12일에 재판율, 6월 30일에는 삼판을 발행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반응은 ‘여류’의 ‘선집’을 넘어, 조선문학의 ‘전집’을 기획하게 된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손성준, 「‘여류’ 앤솔러지의 다시 쓰기, 그 이중의 검열 회로: 『여류단편결작집』(1939)」, 『코키토』 제81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63쪽 참조.

점에 주목하고 이를 “정전화 과정에서 여성 작가와 그 작가의 작품이 고정된 형태로 안착되지 못했음”³³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한다. 여성 작가의 불안정한 위치는 『현대조선여류작가선집』이 상업적으로 흥행을 거두었음에도 이렇다 할 문학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도 짐작 가능하다. “작품성이나 문학사적 의의를 평가하는 본격적인 평문은 없이 ‘여류’의 모음집이 나왔다는 것을 축하하는 인상비평만 있었”³⁴기 때문이다. 그만큼 여성 작가의 작품에 대한 문단의 태도가 진지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선집을 주의 깊게 보고 그 의미를 평가한 비평가는 식민지기 유일한 여성비평가였던 임순득이 유일하다. 임순득은 「여류작가 재인식론: 『여류문학선집』 중에서」(『조선일보』, 1938.1.28.-2.2)에서 “이 선집은 아무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처럼 망각되려 한다”고 문단의 무관심을 질타하며 “그들의(부인 작가들을 가리킴-필자) 집적을 무시로써 대할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임순득은 선집에 실린 강경애, 박화성, 이선희의 소설이 각각 여주인공이 오빠에게 의존적이고, 여성의 가난에 대한 사회적 원인 규명이 부족하고, 여성 현실이 애정의 문제에 국한해 표현되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비속한 흥미와 값싼 ‘야마’와 치졸한 우연으로 말미암아 불성공에 그친 ‘신문소설가’들을 비예(睥睨)”³⁵하라고 조언함으로써 문학 정전이라는 제도에 의해 여성의 글쓰기가 순치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순득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문단에서 여성 작가는 규수 작가나 매스컴 작가로 호명됨으로써 그 문학적 위상은 더욱 낮아진다. 1948년 『조선문학전집』이 발간되지만 여성 작가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 공교육 과정에서도 여성 작가는 거의 배제된다.³⁶ 이렇듯 문학 정전에서 여성 작가가 배제됨에 따라 여성

33 유용태, 앞의 글, 312-313쪽 참고. 김양선 역시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과 『여류단편집』은 모두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하였지만 수록 작품이 각각 다르고, 소설이나 시보다는 수필의 수록 편수가 더 많다는 점을 들어 여성 작가의 근대문학 장으로의 편입이 ‘불안정’했다고 해석한다.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의 정전 만들기와 번역-새로운 여성문학선집 발간을 위한 시론」, 『비교한국학』 제21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3, 46쪽.

34 조선일보사 출판부 주간이었던 이은상이 이 책에 대해 상투적인 상찬을 늘어 놓은 것 외에 이렇다 할 리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소명출판, 2009, 407쪽에서 각주 156번 참조.

35 이상경, 앞의 책, 407-421쪽.

작가들은 한국여류문학인회를 중심으로 ‘한국여류문학상’을 제정하는 등 오명을 벗고 본격 문학 제도 속으로 들어가고자 시도한다. 특히 여성 작가들이 직접 나서서 총 6권으로 『한국여류문학전집』(한국여류문학인회 편, 삼성출판사, 1967)을 발간해 저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정 투쟁을 벌인다. 『한국여류문학전집』은 근대 문학의 태동기로부터 발간 당시에 이르는 긴 기간동안 발간된 여성 작가의 여러 작품을 취사와 선택보다는 포섭과 종합의 원칙을 마련해 여성문학장의 제도화를 꾀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작가들이 자선한 것이어서 비평적 객관성이 부족하며 “여류”라는 단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등 여성 글쓰기의 대항성에 기초해 재정전화를 시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남겼다.³⁷ 강경애나 백신애 등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 작가는 정전 목록에 포함했지만 김명순이나 나혜석처럼 가부장적인 사회나 문단에 의해 섹슈얼리티의 낙인이 찍힌 제1기 신여성 작가들을 배제함으로써 여성 문학의 기원을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³⁸

여성문학 정전의 역사에서 전환점은 1970년대 한국의 지식 사회에 ‘여성학’이 소개되기 시작해 1980년대에 들어 대학을 중심으로 학문적 제도화를 거치는 한편으로 진보적 여성 지식인 공론장에서 페미니즘이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에 대항하는 실천적 지식이자 언어로 부상하면서부터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의 국문학과에서는 페미니즘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석·박사 학위 논문이 발간되는 등 전문가 집단이 등장해 페미니스트 문학 비평이 이루어

36 1946년에 편찬된 『조선대표작가선집』에는 17권 여류작가집과 25권 강경애가 포함되어 있으나 1948년 『조선문학전집』에는 여성 작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용태, 위의 글, 312-313쪽 참고.

37 『한국여류문학전집』에 대한 문학 제도적 측면의 연구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의 정전 만들기과 번역—새로운 여성문학 선집 발간을 위한 시론」, 52쪽;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문학제도와 양식』, 소명, 2012, 233-257쪽; 김은석, 「『여류문학전집』(1967-1979)과 여성문학의 젠더 정치」, 동국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9, 1-184쪽.

38 식민지기 소설 문단의 대표 작가인 김명순, 나혜석, 김원주는 “작품은 없고 스캔들만 요란한 신여성”이라는 굴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신여성 여성 작가에 대한 이와같은 멸시적 평가는 해방과 전후에도 반복되었다. 조연현은 『한국현대문학사』(1961)에서 “나혜석, 김명순, 김일업은 1920년대를 대표하는 여류 시인이며, 또한 작가였으나 모두 문체될 만한 작품을 거의 남기지 못했다”(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인간사, 1961, 457쪽)고 평했다.

지기 시작하는 한편으로 작가 연구의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작가의 선집/전집 출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후자에 한해 살펴보자면, 출판사의 상업적 기대와 대중의 요청이 합쳐져 박완서, 박경리, 강신재 등 대중의 호응이 높으면서도 문단 내에서 영향력이 컸던 여성 작가의 선집/전집이 발간되는 한편으로, 굵직한 문학적 궤적을 남겼음에도 문학사 기술에서 지워진 여성 작가인 김명순, 나혜석, 박화성, 지하련(이상 서정자 편찬), 나혜석, 강경애, 임순득(이상 이상경 편찬), 송계월, 김말봉(이상 진선영 편찬), 백신애(서영인 편찬) 등의 작품이 발굴 및 복원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성문학이 탄생하는 기원의 순간부터 비교적 근래에 이르는 긴 흐름 속에서 여성 글쓰기의 성장과 팽창 혹은 분화와 교차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여성문학 정전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페미니즘 정전 읽기: 근대소설편』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더해진 야심찬 기획으로 주목을 끌지만 식민지기 소설만을 다루는 데 그쳤으며, 여성문학사의 긴 흐름을 담은 경우는 『유리 파수꾼: 여성 작가가 쓴 여성문제 소설 모음』(엄혜숙, 오현주 엮음, 동녘, 1989), 『스무살을 위한 페미니즘 소설』(이정희 편, 청동거울, 2002)뿐이다.

세 권의 책은 페미니스트 문학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집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오늘의 시선에서 보면 더러 아쉽다. 『페미니즘 소설 정전 읽기』은 “작품성을 전제로, 여성 의식의 치열성, 여성 현실의 정확한 반영, 여성 시학의 표출”로 작품을 선택했다고 밝혀 여성문학사 정전을 의도했다면³⁹ 『스무살을 위한 페미니즘 소설』은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또 페미니즘 문학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할 대학 신입생”을 위해 기획되었다고 했을 뿐이어서 여성문학사의 대표작을 선정한다는 자의식이 다소 약하다. 『유리파수꾼』은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론의 일환으로 여성문학을 정전화하려는 목적 의식 속에서 식민지기부터 발간 시점인 1980년대까지에 이르는 긴 흐름 속에서 페미니즘 문학을 선택하고, 문단에서 이렇다 할 평가를 받지 못했던 최미나, 이혜숙, 이경자, 김지연 등 군소 작가의 작품을 리스트에 포함하는 등 과감한 편집 전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성 작가가 쓴 여성문제 소설 모음”이라는 광고 문구가 암시하듯이 정전 개념이 불충

39 송명희, 안숙원, 이태숙 편, 『페미니즘 소설 정전 읽기』, 푸른사상, 2002, 서문 참조.

분해 수록된 작품의 문학성이나 여성 작가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 반론이 제기될 여지를 남겼다. 페미니즘 문학의 시대였던 1990년대 이후에는 창비, 문학과지성사, 민음사, 현대문학 등 문학 전문 출판사에 의해 문학 정전이 새롭게 구축되면서 페미니즘의 대중화 현상을 반영하듯이 과거에 비해 많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되지만 주변성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여성문학의 기원이라고 할 김명순이 여전히 배제되는가 하면 마이너리티로서 여성의 일상이나 시대 체험을 보여주는 작품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정전 선정의 기준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글은 “한국 여성 및 여성문학이 처한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최근 대중 교양 함양이나 문학의 위기에 대한 대응, 즉 새로운 대안적 정전 만들기 차원에서 기획되고 있는 다양한 한국문학 선집/전집 발간 붐에 조용하는 새로운 선집”⁴⁰이 필요하다는 김양선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여성문학 정전화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위 선집들은 모두 여성 작가의 여성성과 젠더를 다룬 소설을 담고 있다. 여성이라는 작가의 신원을 근본적인 조건으로 하되, 문학성과 여성 의식의 치열성이 작품 선정이 기준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1980년대 이전에 발간된 정전은 작가의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공통점이 없었던 데 반해 여성 글쓰기의 전복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성성과 젠더에 편중된 작품 선정을 하게 되면 다수의 여성 작가를 배제하거나 문학적으로 탁월한 작품을 수록하지 못하고, 문학 제도의 성별 분리와 위계화라는 낡은 구도를 극복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문학 정전의 구축이 “단지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작가와 작품의 존재를 자국문학사의 빈 틈새에 끼워 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국문학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을 새롭게 짜는 것”⁴¹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전 논쟁 이후 서구에서는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다양한 계급, 인종, 젠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전이 구축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타자의 문화가 관용의 제국을 빛나게 해 줄 목록으로 전략할 우려가 전혀 없지 않다. 따라서 남성중심으로

40 김양선, 앞의 글, 52쪽.

41 이경하, 앞의 글, 12쪽.

정의된 ‘정전’과 ‘문학성’에 대한 관념을 해체하는 차원에서도 여성의 경험이나 여성 글쓰기의 독자적 미학을 외면하지 않는 정전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여성적 글쓰기 실천을 포괄하는 ‘종합’의 원칙이 그간 특정 시기, 특정 작가에 한정된 여성문학 선집/전집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⁴²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문학 정전은 거의 시, 소설, 희곡 등 문학 장르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앞서 말했듯이 여성 작가가 문학 제도 내에서 저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시, 소설, 희곡 등 허구적 창작물 위주로만 선집을 발간하게 되면 문학 제도 안에서 다소 주변적인 장르로 취급되어 온 수필 등 여성 장르를 열등화하는 등 장르서열주의에 갇힐 수 있다. 또, 여공수기같은 서발턴의 글쓰기를 담지 못하는 등 본격 문학 제도 바깥에서 이루어진 여성들의 글쓰기 실천을 배제할 수 있다. 나아가 여성문학 정전은 기본적으로 출판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독자의 경험을 책을 읽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 문학 정전을 벗어나 유용하거나 귀중한 자료의 모음이라는 의미에서 ‘아카이브’의 형식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⁴³ 근대 문학 초기에는 여성들이 문학 제도에 접근할 기회를 갖기 어렵기도 했지만 교육받은 중산층 계급에게 익숙한 허구적 창작물로는 여성이 글을 쓰는 이유나 욕망을 충분히 포착할 수 없다. 여성의 글쓰기는 미적인 것을 향한 욕망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인 동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기, 편지, 수기, 독자투고문, 비평문, 잡지창간문, 좌담, 팸플릿 등 여성사의 의미있는 글쓰기 실천 사례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단편 소설 중심의 작품 선정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장편의 경우에는 발췌 수록하는 형식을 취해 여성문학 선집이 여성 문학 독자들의 경험을 포괄하는 등 여성 표현의 역사를 일람할 수 있는 박람회장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여성문학 정전은 기존의 문학사에서 무시되거나 저평가된 여성 작가를 발굴하고, 편취되어온 여성문화를 재해석하는 전복적인 작업이 되어야 한다.

42 김양선, 위의 글, 61쪽.

43 아카이브로서 정전 구축 방안을 제시한 글로 다음을 참고할 것. 정영진, 「여성의 글/쓰기, 생산과 재생산: 근세 시대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64-65쪽.

여성 작가와 독자의 정서적 문화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순수/통속의 이분법을 넘어 대중 문학을 비롯해 하위문화 영역에서도 의미있는 작품이나 작가를 발굴해야 한다. 박경리나 강신재 등 많은 여성 작가들이 본격문학만이 아니라 대중문학 영역에서도 활동했다는 점은 여성 작가의 저자성은 대중성이나 상업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한다.⁴⁴ 따라서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여성 작가가 쓴 대중성 강한 작품은 물론이고, 본격 문단과 거리를 두고 주로 상업적 매체에서 활동한 여성 작가에 대한 조명도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여성 문학의 하위문화적 요소에 대한 재해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락방의 미친 여자』의 성취 중 하나는 영국소설사에서 현실 도피 문학으로 취급되어 정전에서 탈락한 고딕 문학을 억압적인 세계의 이면에 대한 탐구이자 남성중심적 전통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로 재해석해 냈다는 것이다.⁴⁵ 강신재 소설의 양풍 저택이라는 장소 컨벤션과 자살한 여자라는 모티프, 오정희나 은희경 소설의 감금과 탈출의 상상력, 박경리 소설의 삼쌍둥이처럼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자매나 친구를 그린 여성 짝패 서사 등은 본격/통속의 구분이 무색하게도 여성 문학에 하위문화적 코드가 풍부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 글쓰기의 미학적 독자성을 해명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여성문학 정전은 서구 중심의 보편적 근대성과는 ‘다른’ 근대를 추구해 온 한국의 특수한 사회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백인 중산층 중심주의에 빠졌다고 비판받아 온 서구 페미니즘 정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식민화와 탈식민화의 경험, 전쟁과 분단, 이산(離散)의 경험, 산업화와 개발, 민주화와 페미니즘 운동의 경험과 같은 사안들이 여성 작가와 작품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재현되었는지, 당대 사회문화적 의제들과 공명하거나 경합하면서 어떻게

44 고규진에 따르면 여성 작가의 이러한 경계성은 문학/출판 시장에서 여성은 유익함과 즐거움이라는 문학적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작품을 쓸 경우에만 저자성을 인정받았던 데서 비롯된다. 그 결과 여성 작가는 정전보다는 소위 여성문학이라는 틀에 갇히게 되어 남성 위주의 정전 형성 과정에서 주변화되어 왔다. 고규진, 『정전의 해부』, 97쪽 참조.

45 18세기 영국 사회의 이념으로 인해 당시 영문학에 대한 비평은 그 이데올로기에 합당한 정전을 밝히고 보존하는 데 관심이 쏠려 이에 합당하지 못한 문학은 정전에서 배제했는데,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고딕 소설이었다.

여성의 시각을 획득했는지를 면밀히 포착할 수 있도록 정전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차성 페미니즘은 이런 시각을 일관성 있게 기술하는 데 유효한 방법론이다. 교차성 페미니스트들은 “젠더는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로 구성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특정 사회의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등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역사적 범주이자, 일련의 사회 규범, 실천, 편견, 제도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이며 지위이자 사회구조”⁴⁶라고 본다. 즉, 젠더,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나이, 시민권, 장애 유무 등 각 항목에 기반한 억압구조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며, 때로는 서로를 통해 강화되면서 여러 억압이 개인과 집단의 삶에 특정한 방식으로 교차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여성 공통의 경험이 있다는 식의 단일한 본질주의적 시각보다는 삶의 다양한 맥락과 사회 구조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은 각기 다른 위치에 놓인 개개인 여성들의 행위 주체성을 읽어내고 이들의 저항 전략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결론을 대신하며

앞서 쓴 바 있지만 1980년대에 한국문학 정전 비판과 함께 페미니스트 비평이 시작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 주류 문단과 출판계의 전례가 없는 관용 속에서 여성 작가의 약진이 이루어지는 등 여성문학의 시대가 열린다. 그러나 1990년대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성문학은 날카로운 비판이 무더진 채 잘 팔리는 타자로 귀착되고 2000년대에 이르면 다소 진부한 주제로 전락해 현격히 퇴조한다. 그리고 다시 2010년대 중후반에 『82년생 김지영』과 함께 문학은 페미니즘의 붐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듯 다시 귀환해 온 페미니즘의 시대가 그저 유행에 그치지 않게 할 만큼 한국의 페미니스트 지식 문화계는 경험이 충분하고 역량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열정도 높다. 2000년대 이후 그 맥이 끊긴 한국 여성문학 정전을 발간하는 일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다.⁴⁷ 이

46 한우리 외, 『교차성×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2018, 44쪽.

47 앞서 쓴 바 있지만 1980년대에 한국문학 정전 비판과 함께 페미니스트 비평이 시작되고 ‘제2의 물결’을 주도한 솔라미스 화이어스톤의 『성의 변증법』(1970)이 맑스와 프로이트의 책을 겨냥하고 있다면, 케이트 밀레트의 『성의 정치학』(1969)은 위대한 문학으로 꼽히는

작업은 근대 초기부터 최근까지 한국 여성문학, 여성 작가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체계적,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및 여성문학사를 통시적으로 설계하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성중심적인, 혹은 젠더 중립적인 시각을 고수해 온 한국 문학의 단일한 주체를 해체해 복수(複數)의 문학, 대안적인 문학이 창조되는 구심이 되어 줄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송명희, 안숙원, 이태숙 편, 『페미니즘 소설 정전 읽기』, 푸른사상, 2002.
엄혜숙, 오현주 엮음, 『유리 파수꾼: 여성 작가가 쓴 여성문제 소설 모음』, 동녘, 1989.
이정희 편, 『스무살의 페미니즘』, 청동거울, 2002.

단행본

- 고규진, 『정전의 해부』, 전북대학교 출판부, 2016, 134-135쪽.
오혜진,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서문을 대신하여」,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권보드래 외 12인 공저, 민음사, 2018, 7쪽.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소명출판, 2009, 407쪽.
한우리 외, 『교차성×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2018, 44쪽.

남성 작가의 작품 속에 도사린 여성 혐오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성이 글을 읽고 쓰는 행위에 정치성을 도입했다. 이렇듯 정전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자 여성 연구자들은 여성들이 쓴 작품의 가치를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부담을 벗고 독자적인 여성문학 전통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펜=페니스’의 등식에 균열이 가자 여성 작가나 여성이 쓴 작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여성중심비평’이 시작되는 한편으로 아버지-아들이 아니라 어머니-딸로 이어지는 잃어버린 문학의 흐름을 복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산드라 길버트와 수잔 구바가 함께 19세기 영국의 여성문학사를 쓴 『다락방의 미친 여자』(1979)의 기초가 된 것은 기존 문학사의 정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여성 작가, 여성 문학들이었다.

- 린 헌트, 정진성 역, 『인권의 발명』, 돌베개, 2009, 193-195쪽.
- 마사 C. 누스바움, 정영목 역, 『인간성 수업—새로운 전인교육을 위한 고전의 변론』, 문학동네, 2018, 17~18쪽.
- 버지니아 울프, 유진 역, 『버지니아 울프 단편 소설 전집』, 하늘연못, 2013, 294쪽.
- 버지니아 울프, 이미애 역, 『자기만의 방』, 예문, 1990, 56쪽, 37쪽.
- 벨 훅스, 윤은진 역, 『페미니즘: 주변에서 중심으로』, 모티브 북, 2010, 174쪽.
- 벨 훅스, 윤은진 역, 『경계넘기를 가르치기』, 모티브 북, 2008, 276쪽.
- 우에노 치즈코, 조승미·최은영 역, 『여자들의 사상』, 현실문화, 2015, 268쪽.
- 장 자크 루소, 김중현 역, 『에밀』, 한길사, 2009, 400-401쪽.
- 제임스 우드, 설준규·설연지 역, 『소설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창비, 2011, 177쪽.
-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엮음, 왕숙영 역,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3, 18쪽.

논문

- 고갑희, 「정전의 탈신비화와 한국의 영문학 교육」, 김용권 외, 『영문학 교육과 연구의 과제들』, 한신문화사, 1998, 211쪽.
- 고규진, 「저자/저자성의 문제—바르트와 푸코의 영향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제67집, 한국독일언어문학학회, 2015, 233-240쪽.
- 김리나, 「메갈리안들의 ‘여성’ 범주 기획과 연대」,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7, 120-121쪽.
-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의 정전 만들기와 번역—새로운 여성문학 선집 발간을 위한 시론」, 『비교한국학』 제21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3, 52쪽, 61쪽.
- 김유석, 「문학 교과서의 젠더 감수성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19, 1-79쪽.
- 김은석, 「‘여류문학전집’(1967-1979)과 여성문학의 젠더 정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1-184쪽.

-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 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권, 상허학회, 2017, 15-49쪽.
- 박상진, 「정전 (연구)의 새로운 지평: 정전성의 정치학」, 『민족문화연구』 제 55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3-7쪽.
- 박수현, 「문학 교과서의 타자 이해 단원 연구—2012 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現代文學理論研究』 6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141-163쪽.
- 배유경, 「여성학/주의 교육을 위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전략 탐구」, 『페미니즘 연구』 18(1), 한국여성연구소, 2018, 352쪽.
- 신기영, 「마이너리티 이론의 탐색: 비본질적·포괄적 연구를 위하여」, 『일본비평』 8호, 서울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3, 25-30쪽.
- 손성준, 「‘여류’ 앤솔로지의 다시쓰기, 그 이중의 검열회로」, 『코기토』 제81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63쪽.
- 유용태, 「근대 한국 문학정전의 문학제도적 접근—『현대조선문학전집』을 중심으로」, 『현대조선여류작가선집』 제47호, 중앙어문학회, 2011, 289-319쪽.
- 이종일, 「정전 논쟁의 사회사적 고찰」, 『사회과교육』 55권 4호, 사회교육연구, 2016, 66쪽.
- 정은희, 박혜숙, 이상경, 박은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 (1)』, 창작과비평사, 1985, 6-52쪽.
- 정영진, 「여성의 글/쓰기, 생산과 재생산—근세시대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5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64-65쪽.
-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작가세계』 3(1), 1991, 작가세계사, 97-144쪽.
- 최문규, 「낭만주의와 저자성—저자 주체Autosubjekt의 정립과 해체 사이에서」,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43호, 한국뷔히너학회, 2014, 42쪽.

Abstract

The Decomposition and Reorganization of Literary Anthology:

Kim, Eunha

Criticism that the “power failure” has dominated with a kind of authority under the faked myth of objectivity and exercised conservative and exclusive power over the culture of hitters is evident. But the simple truth that human life is finite suggests that power outages are both irrevocable and badly nee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view power outages flexibly as not a myth of permanent immortality, but as a concept that implies variability in which exits and replacements are made. Electrostaticity requires an open attitude that sees that the contents and standards change depending on the times and context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that the blackout should have. Furthermore, it should register the knowledge or cultural heritage of social minorities so that the judgment of the value of the blackout does not depend on the interests or interests of some privileged classes.

Today, the “feminism reboot” phenomenon, represented by the “Kim Ji-young” (Minumsa, 2016) syndrome, suggests that discussions on “out of power” are still valid. Prior to the 2018 Mitoo craze, the 2015-2016 hashtag movement reported raw violence hidden behind the lofty name of literature. Sexual violence in the door was a literary issue that cannot be reduced to a moral deviation of some male literati, as the perpetrators took away not just from the ownership of the body but also from the long-standing desire or respect for literature. This means that fundamental and reflective questions about ‘literature’ or ‘literature’ should be raised. The stereotype of women’s literature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partition of the aesthetic” that disassembles literature that has been built around the values, interests and interests of middle-class intellectual men and registers the voices of social minorities. For feminist literary researchers, the origin of women’s literature and the work of building an Anglo-ji, which will register its history and make it a spiritual legacy, cannot be delayed further.

Key words: Anthology, counter canon, feminism, literature, Korean Women’s literature, history of canon, feminism reboot etc

본 논문은 2019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